



아버지의 집, 혼합재료, 100x100, 2012년

서양화가 최순민은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팔레트드서용 갤러리, 현대H갤러리, 인사갤러리, 그림손갤러리, 아산갤러리 등에서 모두 14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내외에 열린 주요 아트페어 및 단체전에 140여회에 참여하였다.

최순민, 영원한 안식의 집

6 서성북(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창난감이 생긴 아끼지 못한 모양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그안에는 빨강과 파랑과 노란 색깔들과 온갖 화려한 무늬들이 장식되어 있다. 금속조각이나 인조보석들로 치장한 최순민의 그림을 볼때면 심중팔구 두손에 피자를 가득히 움켜쥔 어린이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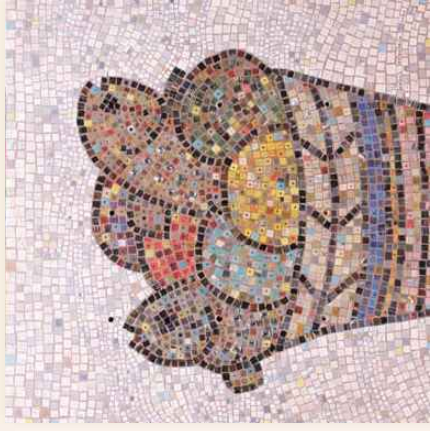
최순민이 작업의 레퍼토리로 삼아온 것은 다름 아닌 집이다. 힘찬 필선이 넘실거리는 수목화풍의 회화작품을 해오다 2005년 이후에는 집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집만큼 든든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루 종일 세파에 시달리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곤이 싹 가시고 안도감을 갖는다. 이런 집에 대한 인식은 그의 작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편안함을 주며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예쁜고 아담한 집이 그의 작품에서 풍기는 이미지들이다.

이전에도 집을 그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때 활동한 김중찬의 <토담집>(1939)은 쓰러져가는 흙으로 된 집을 보여준다. 말이 집이지 실상은 초라한 움막에 가깝다. 장욱진의 <마을>(1956)에도 집이 등장한다. 두 재의 집이 그려져 있는데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의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한 사람 살기에도 버겁게 느껴지는 작그마한 집을 표현하였다. 향토적인 화풍을 선보인 박수근도 집을 자주 그린 편이다. 시골의 기와집과 초가집을 가리지 않고 그렸는데 눈발이 떨어 있거나 마당에 장독대가 있고 닭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분위기를 잘 포출해냈다. 이렇게 작기마다 집을 대하는 시각이 다르면, 화풍에 따라 특색있게 조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순민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언뜻 보기에는 밝고 화려한 레고로 만들었거나 장난감같은 모양이다. 종래의 화가들에 비해 서술이 배제되어 있고, 선과 면으로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모양이 집과 유사한 오각형이며 제목으로도 그것이 '집'이란 사실을 밝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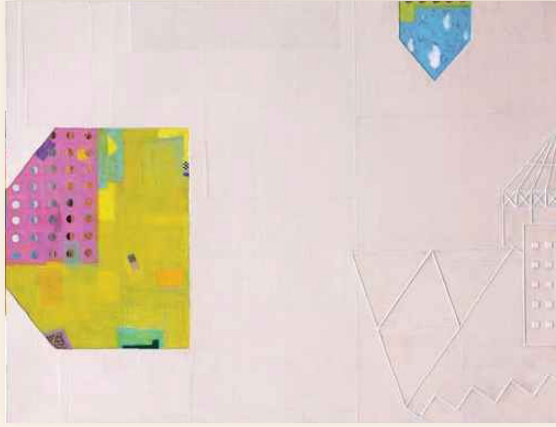
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은 집의 단면만 크게 확대하거나 실선으로 불투하게 처리한 것, 집이라는 실선을 용접한 경우도 있다. 다양한 변형을 피하지만 대체로 그의 집모양은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많은 집 가운데서도 작기가 형용한 이미지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이다. 작가는 스트라이프, 뾰, 도트와 같은 여러 장식과 칼라풀한 색채 및 인체물을 이용해 집을 꾸민다. 영롱한 인조보석은 그림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데 홍거운 노릇가락이 흘러나오는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가는 애당초 집의 구조와 세부를 재현하는데 신경을 쓰기보다 집의 이미지, 즉 집이란 어떤 공간가를 더 강조하려고 애쓴 모습이다. 세모의 지붕과 둥근한 돌기둥, 그리고 본체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별이 빛나는 하늘에 세워진 으리으리한 도성(都城)같은 곳도 있다.



Gift, mixed media, 100x100, 2009년

작가는 왜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정성을 다해 꾸몄을까? 아버지의 집이 데릴딸이나 화려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세심 이룬 작품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이란 돌이나 목재나 대리석으로 만든 기시적인 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란 상징성을 띤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혼합재료, 165x126, 2009년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친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만든다.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신적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우리가 머무는 곳으로 생각해보 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스러운 분으로 인식할 뿐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윗은 이런 우리의 인식에 일침을 가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그의 품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각종 위협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막힌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인식도 위로도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부와 향락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서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나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행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사업의 실패로 낙심할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어떨까? 성경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고 말한다. 우리 존재의 심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사랑이 심겨진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끝없는 기쁨과 새 힘의 출처가 된다.

오늘도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최순민의 작품은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준다. 그의 집은 광채로 번뜩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바룩 작은 캔버스이지만 그속에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 “영생하도록 속아나는 썩발”(요 4:14)을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태연한 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영혼이 새 기운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의 집만큼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품안에 있을 때에만 맘 편히 안식할 수 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에 펼쳐진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므로써 우리에게 만축을 주시고 고요에 잠기게 하신다. 단순히 집을 제 시하였을 뿐이지만 작가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있을 때처럼 만족감과 행복감을 진달한다. 그분의 집에 들어가 내내 살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의 정조(情操)를 실어 넣음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의 영화로움을 사실적으로 진달하기는 어렵다. 색과 리듬감만으로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적 상태를 시각언어로 바꾸는 제약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럴수록 조형언어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화면을 들여다보면, 흰 바탕은 단아하면서도 포근하다. 질로감을 주려고 바탕에 하드 보드를 깔고 다시 한지를 서너 번 입히고 그 위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거나 돌가투를 뿌려서 견고한 바탕의 느낌을 살려냈다. 말하자면 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려내면서 평면을 잘 가다듬어 내밀성을 잘 간직하도록 한 셈이다. 그리하여 배경의 충실함을 통해 주제의식이 분명해지도록 했다.

작가는 은밀한 마음의 집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모형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조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에는 한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인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즐거운 분이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관대함은 그분의 무한한 기쁨과 깊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자아내시고 바깥으로 유출시키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사랑을 제공받는다. 최순민



Gift, 혼합재료, 95x110, 2010년



서성택(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회화과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함)은 미국 동서문화재단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전’, ‘멜브린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테크니언’, ‘예술의 맥스’, ‘멜브린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두리 미술 100년’이 있다.

이 아버지의 집을 지극히 사랑스럽고 정성스럽게 꾸민 것은 실제로는 집 주인의 풍성한 사랑과 관대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라.

근래에 작가는 집 시리즈에서 정물로 소재를 약간 넓혀가고 있다. 네모나 종이 조각으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바퀴 종전보다 훨씬 장식적인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화분에 꽃과 식물이 자라는 것이라든지 물고기와 빵을 수북이 담은 광주리를 표현한 것 등 조밀한 짜임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들에 ‘선물’이란 타이틀을 붙였다. 이미지는 종래와 다르지만 사실 작품상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아버지의 집>이 창조주의 영화스러움을 나타냈다면, <선물>은 은혜 충만한 세상을 나타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상기하면 모든 게 ‘선물’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베푸신 것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작가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그림에 담았다. 최순민의 그림에는 빵이든 열매이든 식물이든 풍족하다. 음식으로 치면 ‘성찬’이요 꽃으로 치면 ‘백화년만찬’ 동산이다. 화려한 색채와 모양새만을 보고 장식적 높은 정물로 여긴다면 너무는 보고 싶은 것이 못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음에 그득한 충만한 은혜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가 아닐까 싶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쁨에 ‘영혼이 든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제공하고자 계심을 알게 해준다. 방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온갖 귀한 것으로 아들을 맛았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짐에선 누군가를 위해 환영찬까지 벌어지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넘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선물이에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